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5년 3월호)



이경식 부총장(해외협력), 2월 한국 방문기

2월 17일, 인천공항에서 LA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이 한국 방문기를 쓰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CST의 부총장(해외협력)으로 임명된 후, 한국을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주목적은 2024년 7월 출범한 전문 상담 박사(DPC) 과정을 위한 두 주간의 집중 수업을 관리하고 또 제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문을 만났고, 교회를 방문했으며, 후원자와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간의 한국 방문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유성준 목사님과 사모님, 찻집에서)

한국 동문을 만나며 그분들이 생각하는 CST와 CST를 위한 조언을 귀담아들었습니다. 제가 2004년에 CST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CST는 백인 중심의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CST에서 학위를 받으신 동문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CST가 유학생에게 그렇게 환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었던 유학 생활이었다고 이분들은 말합니다. 대부분 동문은 CST의 학문적 역량 그리고 뛰어난 교수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많은 기억을 떠올리며 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재정적 지원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문은 학업과 함께 full-time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고, 사모님까지 세탁소에서, 식당에서, “막노동”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좀 더 최근에 졸업한 동문도 CST의 학문성과 교수진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백인 중심의 학교가 아닌 CST의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한인 목회자를 위해 만들어진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학에 대한 평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시대의 갈등에 대한 치유와 변혁을 연구하는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많은 동문에게 교회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깨달음의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문은 이 목회학 박사 과정이 본인의 사역에 혁명적 변화를 주었다고도 평가합니다. CST가 많이 발전하였고 한인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진: 송기성 목사님과 이종오 이사를 포함한 정동교회 기부자와 함께)

저와 만나서 대화해 주시고 음식을 대접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전용재 감독, 권오서 감독, 송기성 목사, 정태기 박사님과 박성자 사모, 최신성 목사, 신영각 목사, 전병식 목사, 이상수 목사, 박강민 목사, 박성영 목사, 김용환 교수, 정푸름 교수, 김두영 목사, 정진용 목사, 허정운 박사, 김예은 전도사) 감사합니다. CST 동문은 아니지만 CST의 후원자 분들과 나누었던 의미 있는 만남과 대화도 뜻깊었고 감사했습니다 (이종오 이사, 천영태 목사, 정동교회 후원자 여러분, 유경동 총장, 유성준 교수, 김두범 총무, 은희곤 감독, 길은영 박사). 여러 재학생과의 만남도 의미 있고 유익했습니다.



(사진: 정동교회 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아펜젤러 일기 사본 전달)

제 직책 중 하나가 모금 운동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오늘까지 모금한 금액은 \$323,973이며 작정 받은 금액을 포함하면 \$531,013입니다. 이 금액은 거의 한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아쉽지만, 이 중 한국에 있는 후원자의 기부 금액은 \$30,000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또는 신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한 연결점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계신 동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동문이 섬기는 교회마다 CST를 위한 헌금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크든 작든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문이 모교를 위해 기부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면,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될 수 있을지 자문해 봅니다.

DPC 과정에서 영성통합심리치료 과목을 한 주간 가르쳤습니다. 영성통합심리치료는 미국에서도 최신 심리치료 분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행군을 했는데도, 잘 따라온 재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주 수업을 마치고 상담에 대해서 또 상담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재조명했다고 평가하는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CST가 한국에서 중요한 신학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진: 신영각 목사, 영성통합심리치료 수업 방문)

미국 많은 신학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동문회가 CST의 한인 동문회입니다. 무려 400명이 넘는 동문이 한국에서 신학 교육 현장의 지도자이며, 교단의 지도자이고, 치유와 사회 변혁을 위한 지도자입니다. CST 동문의 지속적인 활약을 기대합니다.



(사진: 치유상담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축하하는 이경식 부총장)

존 B.캡 주니어(John B. Cobb Jr. 1925.2.9 - 2024.12.26) 박사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영혼 : 살아있는 유산

- 스티브 호스윌-존스톤(Steve Horswill-Johnston) 부총장 (COO)



<사진: 스티브 호스윌-존스톤(Steve Horswill-Johnston) 부총장>

존 캡 박사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멘토이자 길잡이였으며, 제 삶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형성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1985년 존 캡 박사의 첫 번째 강의를 들었던 경험은 제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강의를 들으러 갈 때 녹음기를 가지고 갔고, 신앙, 이성, 그리고 지성으로 영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매우 특별한 경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생각과 감정 모두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도록 초대해 주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녹음을 다시 들어보았고, 여전히 그 지혜는 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녹음 내용을 필사하여 존 캡 박사가 지닌 깊은 이해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아들들에게 보냈습니다.

CST 부총장(Chief Operating Officer)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는 존 캡 박사에게 계속해서 배울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통찰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곁에 계셨으며, 인터뷰, 신학적 관점, 차분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연락을 받아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CST가 역사가 깊은 클레어몬트 캠퍼스를 떠나는 것을 기념하는 '66 Years on Route 66' 행사 준비를 함께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학교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마치 끝을 맞이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캡 박사는 전환을 상실 아닌, 성장과 변화의 중요한 과정으로 바라보며 명확성과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는 가장 큰 아이디어부터 작은 세부 사항까지 모든 것에서 그의 신학적 의미를 보았고,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 가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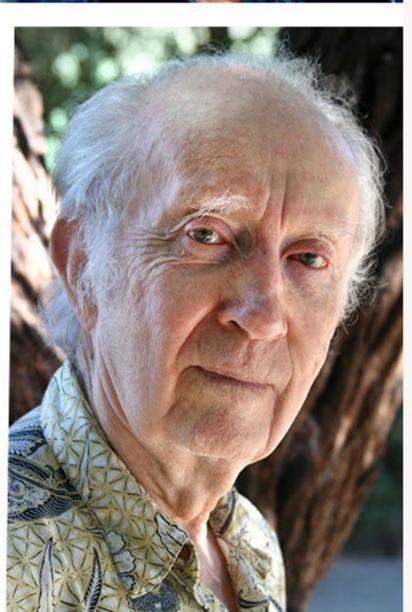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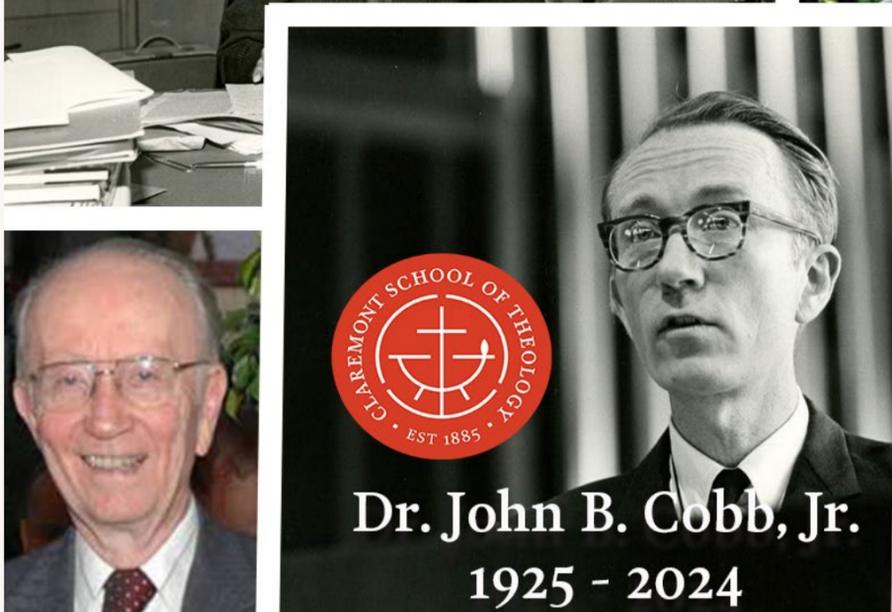
존 캡 박사는 1958년부터 1990년까지의 CST 재직 기간 동안 학교의 학풍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973년, 데이비드 레이 그리핀(David Ray Griffin, 1939-2022) 박사와 함께 과정 신학 연구소(Center for Process Studies)를 공동 설립한 것은 CST와 전 세계 신학 공동체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과정 신학이 신앙과 과학, 철학과 윤리, 영성과 지구의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통합할 수 있는 틀이라고 여긴 학자들, 신학자들, 활동가들의 모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정 신학 작업은 획기적이었으며,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의 철학적 통찰을 기독교 신앙의 강력한 비전으로 엮어냈습니다. 그의 저서인 《A Christian Natural Theology》(1965)와 《Christ in a Pluralistic Age》(1975)는 변화, 관계성, 그리고 모든 존재의 상호연결성을 포용하는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생태학적 신학에 대한 헌신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그의 저서 《A Theology of Ecology》(1971)는 그 시점에서 환경 위기에 대한 신학적 대응을 촉구하는 예언적 긴급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당시 종교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존 캡 박사의 가장 큰 유산은 그가 가르치고 멘토링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방식일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단순히 학위를 받고 CST를 떠난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갖고, 지적 호기심에 대한 헌신과, 신학이 항상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 캡 박사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도전받고, 영감을 얻으며, 인간이란 무엇인지, 신실함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란 무엇인지를 평생 나누는 대화에 초대받는 것이었습니다.

존 캡 박사는 공식 은퇴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CST와 과정신학연구소 활동에 깊이 참여하였으며,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하며, 과정 신학을 더 넓은 신학적 및 윤리적 논의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존재는 신학이 절대 완성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항상 대화 속에 있어야 하며, 진리를 향한 탐구는 목적지가 아닌 여정임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존 캡 박사는 사람들이 CST를 떠올릴 때 생각하는 그 의미 자체를 형성하셨습니다. CST가 현재나 미래에 어디에 위치하든, 그의 존재는 언제나 그곳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CST의 DNA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학교의 학문, 사명, 그리고 항상 과정에 있는 신학에 대한 헌신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비록 그의 물리적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 있는 힘으로 남아, 앞으로도 CST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영감을 주며,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일주일 - Frank Rogers, Jr. 교수



〈사진: 프랭크 로저스 교수와 DPC 학생들의 따뜻한 만남〉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한국에서의 시간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정희 교수님이 꽃다발과 갓 구운 간식으로 저를 환영해 주었고, 이삼열 교수님은 호텔과 이동 일정을 세심하게 챙겨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뜻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한 신문 기자는 분열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비'의 역할에 대해 저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의 제자였던 분들이 이제는 동료가 되어 반갑게 맞아 주었으며, 따뜻한 포옹과 함께 정성 어린 선물을 건넸습니다. 특히, 손으로 조각한 십자가와 예수님의 제자들 목각상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넘치는 친절과 따뜻한 환대는 단순히 제 마음을 녹였을 뿐만 아니라 제 영혼까지 새롭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평일 동안은 김정희 교수님과 함께 집중 강의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서울에 위치한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그곳의 따뜻한 환대와 훌륭한 교육 환경 덕분에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전문상담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내면가족체계(Internal Family Systems, IFS) 치료였습니다. IFS는 영적 치유와 깊이 연결된 매우 독창적이고 변혁적인 치료 기법으로, 수강생들은 이론적 이해를 넘어 이를 자신의 영적 삶과 상담 실무에 직접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 영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도구가 되고자 헌신하는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어 큰 기쁨이자 영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몸은 여전히 두꺼운 겨울 코트를 걸치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함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깊은 배려와 환대는 가슴 벅찰 정도로 감동적이었고, 만나는 곳마다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교수님들, 목회자들, 상담사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상처받은 세상에 치유와 희망이 더욱 널리 퍼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진: 프랭크 로저스 교수와 김정희 교수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치유와 성장의 여정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DPC 과정 이야기

- 전문상담박사과정 DPC 2기 이명옥(LEE, MYUNGWOOK)



〈사진: 이명옥 학생〉

치유상담연구원과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졸업 후 수많은 임상을 경험하며 상담센터를 운영해 왔고,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저만의 철학을 정립하고 싶다는 갈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를 위해 박사과정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연구 자료를 접하며 치료 기법을 확장하고, 저 자신만의 상담적 접근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한 곳이 바로 CST의 DPC 과정입니다. 이곳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치유'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확산시킨 치유 상담대학원 대학교의 정태기 명예총장님께서 CST의 동문이시기 때문입니다. 명예총장님은 늘 자신의 모교에서 배운 치유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그곳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CST와의 협업을 통해 DPC 과정이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고, 명예총장님께서 공부를 권유해 주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DPC 과정에서의 배움과 성장

저에게 의미는 삶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보람을 느낍니다. DPC 과정을 시작하면서도 저는 상담 현장에서 마음이 상한 내담자들과 하루 10시간 이상을 보내며, 그들의 상처에 함께 아파하고 회복의 기쁨을 나누며 몰입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첫 학기의 변화는 저에게 있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고, 몸과 마음이 적응하느라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이 몸에서 열감으로 표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학기, 상담의 법과 윤리와 고령화, 노년층 상담

첫 학기 상담의 법과 윤리 수업에서는 국내외 상담 윤리를 깊이 있게 배우며, 제 상담 방식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담자로서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이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안내해 주신 유상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용환 교수님의 고령화, 노년층 상담 수업에서는 노년 상담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 노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상담자로서 앞으로 더욱 필요한 분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기, 내면 가족 체계(IFS)와 영성 통합 심리치료(IS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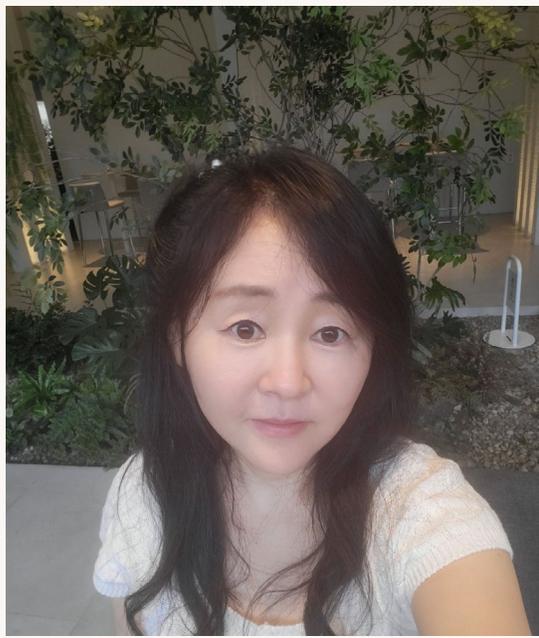
이번 학기에는 IFS를 배우며, Frank Rogers 교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상담 방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담자의 내면 자원을 찾아 회복을 돕는 교수님의 접근법이 제가 상담에서 지향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놀라웠고, 그의 상담 기법을 더욱 흡수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경식 교수님의 영성통합심리치료 수업에서는 혼란스러웠던 '영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신앙과 인간 본연의 신성한 에너지를 구분하면서, 종교적 색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신앙적 배경을 존중하면서도,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배움의 기쁨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앞으로의 배움과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특히 함께 연구하며 배우는 동료들과의 시간은 이 과정의 축복 중 하나입니다. 수업 전 국민체조를 하며 몸과 마음을 깨우고, 서로 간식을 준비해 나누며 웃음 속에서 공부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물론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도 진행되지만, 그렇기에 대면 수업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주신 치유 상담대학원 대학교와 CST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과 상담과 치유의 의미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CST에서 1학기를 마치며

- 전문상담박사과정 DPC 2기 홍수진(HONG, SOOJIN)



〈사진: 홍수진 학생〉

2025년 봄학기부터 전문 상담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홍수진입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 상담 분야에서의 학문적 탐구와 실천적 적용을 깊이 경험하며, 전문성과 통찰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아직 한국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경식(K. Samuel Lee) 부총장님의 Spiritually Integrated Psychotherapy 강의와 Frank Rogers Jr. 교수님의 Internal Family Systems and Healing 강의를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과 심리치료 모델을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상담 사례를 분석하며 이론과 임상을 연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 중 교수님과 동료 학우들과의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상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배우고,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이 단순한 이론적 학습을 넘어, 인간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과정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학기를 통해 상담 이론과 영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치유하는 심리치료법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의 세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상처 회복을 돕기 위해 적절한 개입 방법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Internal Family Systems (IFS)와 Spiritually Integrated Psychotherapy를 배우며, 상담자로서 한층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제게 마치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귀중한 배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내담자를 존중하는 상담을 실천하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를 의미 있는 배움과 성찰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이경식 부총장님과 Frank Rogers Jr. 교수님, 그리고 함께한 동료 학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CST에서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김남중 (Namjoong Kim) 부학장님과 김정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내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상담 박사(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과정 입학설명회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프로그램 소개

전문상담 박사(DPC) 과정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과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HCG)가 협조 관계 아래 상담학 석사나 관련된 학위를 소유한 상담사를 위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었으나, 언어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유학의 어려운 관문을 넘을 수 없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몇 년의 해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상담 박사(DPC) 과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차 입학설명회

- 일시 : 2월 5일 (수), 10:30-12:00
- 장소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1)

중 입학설명회

- 2차: 2월 11일 (화) 오후 8시
- 3차: 3월 1일 (토) 오전 9시
- 4차: 3월 15일 (토) 오전 9시
- Zoom meeting ID : 577 257 9397

학제에 관하여

- 총 36학점(한 과목당 4학점)
- 졸업생은 CST의 졸업장 수여

지원자격

1. 대학원에서 상담학, 상담 관련분야 등 학위 취득한 자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2. 교육부가 인정한 상담학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2)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4. 입학에 위해 기초신학과목을 학부 이상에서 이수한 자(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
- * 신학과목 미이수자는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영상강의를 수강하면 이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입학원서/등록금과 장학금/논문

1. 링크를 통해 원서 작성: <https://cst.edu/apply-now/>
(수료한 학사 이상의 학위의 공식 영문 성적표, 3장의 추천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에세이, 이력서, 전형료 \$50 (신용카드 결제 가능))
2. 등록금(한 학점당 \$1,100)/ 소정의 장학금(등록금의 25%까지)
3. 논문은 한글로 쓸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영어 논문 제출을 원하는 자는 한글 완성 후,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 가능,
2명의 교수로 구성된 논문 위원들 지원, 완성 과정에 구술시험

교수진

1. 클레어몬트: 이경식 교수, Frank Rogers Jr. 교수, Yuki Schwartz 교수, Andrew Dreitcer 교수
2. 치유상담대학원: 김용환 교수, 유상희 교수, 정푸름 교수

문의: 김민정(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졸업생, minjung.kim@cst.edu / 010-3243-7568)

2025 한인연합감리교회 강좌

마음과 이성, 신앙과 지식의 성장을 위하여

“Growing in Hearts and Minds, Faith and Knowledge”



강사: 강남순 교수

- 소속: Texas Christian University, Brite Divinity School 교수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객원교수
- 학력: Drew University, Ph.D.
- 수상: 2017년 경향신문 선정 올해의 저자
- 경력: Texas Christian University, Brite Divinity School 정교수
영국 Cambridge University, 신학부 연구교수
세계신학교육기관 협의회 (WOCATI) 회장
한국일보, 시사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저서: 철학자 예수 (2024), 데리다와의 데이트 (2022),
코즈모폴리터니즘이란 무엇인가 (2022), 질문 빈곤 사회 (2021)

행사일정

| 시간/일정 | 4월 5일 (토) 공개 강연 | 시간/일정 | 4월 6일 (일) 목회자 강연 |
|------------------|----------------------------------|------------------|-------------------------------------|
| 오전 10:00 - 12:00 | 공개 강연 1: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 오후 16:00 - 18:00 | 예수는 어떠한 리더인가? 예수 리더십의 7가지 원리와 철학 |
| 오후 12:00 - 13:00 | 점심식사 | 오후 18:00 - 19:00 | 저녁식사 |
| 오후 13:00 - 15:00 | 공개 강연 2: 21세기,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 | |

주최와 장소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후원 :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 (이석부 목사), 서부지역연회(Grant Hagiya 감독), 온타리오연합감리교회 (전재홍 목사),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월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찬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회장)

문의 : 이경식 부총장 (626.616.2478, slee@cst.edu)

등록 : 우측 하단 QR 참조



등록QR코드

2025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한국어) WASC & ATS 승인: 글로벌 하이브리드 신학 교육

이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100% 원격 수업 인증으로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 1월 겨울학기: 한국에서 대면 현장 집중 수업 진행
- 7월 여름학기: Zoom을 통한 실시간 원격 집중 수업 진행

미국 내 대면 수업 없이 여행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자에 대한 부담 없이 신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글로벌 하이브리드 신학 교육 특징:

- 현장 중심 학습과 원격 학습의 통합
- 유연한 시간 관리와 학습 환경
- 뛰어난 교수진과의 실시간 상호작용



CST에 입학하여 새로운 신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험해보세요!

미국 유학의 첫걸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학생회가 함께 합니다



〈사진: 송영한 전도사〉

안녕하세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ST) 한인학생회 회장 송영한 전도사입니다. 2025년 가을학기 입학 지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지원서를 제출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입학 지원 마감일은 6월 1일이지만, 유학생들은 비자 발급 절차를 고려해 가능한 빨리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후 1-20 서류를 받아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또한 장학금 수려와 관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입학을 계획 중이시라면 서둘러 입학원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CS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미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한인학생회가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생활부터 비자 발급, 주거, 생활, 그리고 현지 사역까지 미국 유학의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준비하면서 막막하셨던 부분도 한인학생회를 통해 보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자 신청과 거주할 장소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인학생회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방법

입학 준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한인학생회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하시면 카톡방을 만들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인학생회 이메일: KSA@cst.edu

2025년 가을학기에는 더 많은 한인 학생과 함께 신앙과 학문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송영한 전도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학생회 회장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한인학생회

졸업 & 학기 종강 예배/파티

날짜 : 2025.5.19 (월)

장소 : 632 S. Grand Ave. Pasadena, CA

문의 : 송영한 전도사(한인학생회 회장)

yeonghan.song@cst.edu



한인 영구 장학금(Korean Endowment Fund)을 소개합니다.

이번 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에서는 이종오 박사와 진현주 여사의 삶과 헌신을 소개합니다. 이종오 박사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학문 연구를 통해 국제 사회에 기여하며, 경영과 교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진현주 여사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활발한 연주 활동과 후학 양성에 헌신하며, 예술을 통한 깊은 감동과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며,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이종오 박사

진현주 여사

이종오 박사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태어나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인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경영학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기초를 다졌다.

이종오 박사의 경력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삼성전자의 유럽수출 전진기지에서도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유럽 시장 개척의 선구자로 활약했다. 이후 그는 삼성전자를 떠나 (주)엘슨전자 수출회사를 설립하였고, 러시아, 동유럽,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주요 시장을 개척하며 15년간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력을 쌓았다.

이종오 박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로도 활동했다. 또한 그는 엘슨전자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을 이끌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국데이터전략학회의 이사로서도 활동하며 학문적 및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략 분야에도 기여하였다.

이종오 박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대외협력 부총장과 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학계와 실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종오 박사는 그의 다채로운 경력과 학문적 성과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

진현주 여사는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한 후, 1996년 독일 칼스루에 국립 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바이올린 전공)을 졸업했다. 2000년에는 독일 트로싱엔 국립 음대에서 바로크바이올린 전공 전문연주자과정을 수료했으며, 같은 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의 전문연주자 과정(실내악 과정)을 졸업했다. 그녀는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Cartusiana Meisterkurs를 수료하며 A. Schwarzbach에게, 독일에서 Meisterkurs Franz Liszt를 수료했다.

독일에서는 Karlsruhe Schloss Gottesaue Velte Saal 독주회를 비롯해 Vaihingen/Enz Peterskirche 초청연주, 독일 Nuenberg 국립대학 초청연주회(String Quartet), Ostfriesische Landschaft Musikalischer Sommer에서의 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서 그녀의 실력을 선보였다. Junge Kammer Philharmonie in Baden-Wuerttemberg, Stadt Philharmonie Reutlingen의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2000년에는 독일 Stuttgart Kammer Orchestra Arcata의 수석단원으로 독일과 스페인 순회연주를 통해 국제적인 무대에서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쌓고 재능을 인정받았다.

2000년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독일문화원 초청 연주회, 한독음악 동문회 연주, 스트링 앤 보우 추천 영 스트링 플레이어 시리즈 독주회 등 국내에서도 꾸준히 연주하며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2002년에는 스트링 콰르텟 플레이스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아시아 작곡 연주회, 세계 여성 음악제, 서울 국제 컴퓨터 음악제, 팬 뮤직 페스티벌 등 주로 현대 음악제에서 실내악 주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통영국제음악제앙상블(Ensemble TIMF)의 창단 멤버로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현주 여사는 현해은, 홍종화, N. Erlich, J. Holloway, W. Koenig 교수와 Melos Quartet을 사사했으며, 현재 송파교향악단 악장과 마드리 실내악단 객원 악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숙명여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경기예고,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2025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6일 기준 -

이병준 장로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이혜자 권사
박성숙 사모
황인조 장로
이진우 회장
서혜주 권사

강신욱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이종오 박사
월셔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그랜트 하기야 감독
이경식 부총장
이현재 목사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4일 기준): **\$299,823**

| | |
|--|-------------|
| - KEF 잔액(1990.03. - 2025.3.): | \$2,391,654 |
| - KLS 잔액(2018.10. - 2025.3.): | \$698,865 |
| - General Fund 합계(2024.03. - 2025.3.): | \$13,728 |
| - CKM 합계(2025.1. - 2025.3.): | \$5,000 |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한인연합감리교회 공개 강좌 후원”

-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 월셔연합감리교회 (이성영 목사)
-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영 목사)
- 크리스찬위글리 (조명환 목사)
-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영 목사)
- SeAh Steel American, Inc. (이병준 회장)

총액: \$8,000

* 작성 현금:

- 남가주 한인 여성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